



지난 10월에 열린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저작권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진은 한국관의 모습.

“성과는 미미했으나 가능성은 확인했다”

저작권 수출 후속조치 위해 분주한 출판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폐막된 후 각 출판사들은 저작권 수출계약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도서전에서 저작권 수출 성과는 미미했지만 수출 판로를 개척할 가능성은 확인됐다. 저작권 수입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출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도서 개발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출판인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10월 23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막을 내린 후 도서전에 참가했던 각 출판사들은 그 성과를 점검하느라 부산하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 저작권의 수출계약과 상담이 활발했던 출판사들은 후속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조사에 따르면, 도서전 기간 중 저작권 수출입 상담은 600여건, 저작권 계약은 70여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상담 700여건, 계약 60여건이었다.

이번 도서전에서 한국관에는 문학동네·해냄·현대건축사 등 15개사가 참여했고, 대한교과서·와이즈북·웅진닷컴은 독립부스를 마련했다. 이들 출판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수출 현황을 일별해보면, 성과는 미미했으나 가능성은 확인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학기술 도서의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학기술 도서 수출 전망 밝아

웅진닷컴은 <수학동화> 시리즈 가운데 <어떤 모자를 만들어주지?> <동그랑고 크고 빨간 단추> <심심한 왕자> <장군이 된 꼬마병정> 등 4권의 저작권을 태국의 Nanmee Books Co., Ltd.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볼로냐 국제도서전 이후 협의를 거쳐 이번 도서전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웅진닷컴은 아동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저작권 수출을 위한 조직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미리 주력도서를 선정해 영문 샘플도서(그림을 제외한 텍스트를 영문으로 편집)를 제작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했다. 전시된 책에 대한 홍보용 영문전단도 미리 준비했다.

지경사도 <스티커 숨은 그림찾기> 시리즈 가운데 <이슈> <안데르센> 등 2권과 <똑똑 아기 첫 그림책> 시리즈 가운데 <숫자> <시계> 등 5권을 중국의 North-China Women Children's Publishing House에 수출했다. 지난 8월 말에 열렸던 북경도서전에서 협의했던 출판사와 다시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

사계절의 청소년 도서 <논리 시리즈> 3권은 대만의 Planter Press와 저작권 계약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일본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생활사 박물관>, <논리랑 놀자> 시리즈, <글자 없는 그림책>

시리즈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리 출판의 경쟁력 확인해

과학기술·실용분야의 활약도 돋보였다. 건축세계사는 국내의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본격 조명하는 <PA시리즈> 20권 가운데 <안토니 가우디> <도요이토> <마리오 보타> 세 권과 화보집 <2000 서울 ASEM & Convention Center>를 스페인, 독일 등의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추진중이다.

영진닷컴은 저작권을 '입질' 하는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로 불렀다. 독일의 Galileo Press GmbH, 그리스의 A. Malliaris Paedia S.A., 인도의 Bookwell, 터키의 Sistem Publishing 등이 <3D Max> 시리즈, <바이블> 시리즈, <About> 시리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디자인하우스는 독특한 비주얼과 깔끔한 판형으로 주목받은 경우다. 국내의 디자이너의 대표작품을 소개한 <누벨 오브제>와 <요리 무크> 등이 미국·중국·스페인 출판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저작권 수출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저작권 문의가 많았다는 게 관계자의 말.

인문사회 분야에선 한울에서 펴낸 김대중 대통령 관련서가 주목받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김대중 옥중 서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인동초가 피기까지> 등에 대해 일본과 네덜란드 출판사가 저작권 추진의사를 다진해왔다. 한울은 저작권 대행업체인 이카에 저작권 협상을 의뢰한 상태다.

문학에서는 박상연의 <DMZ>(민음사)가 일본의 문예춘추사와 저작권 협의중이다. 잡지분야에서는 웹 아트 전문지 <웨바(Weba)>가 홍콩의 Pace 잡지 유통업체와 영문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전에 참가했던 출판인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세계 출판시장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라고 강조한다. 웅진닷컴의 김경순 국제업무팀장은 “소극적으로 도서전에 참가하기보다는 상품성 있는 도서 개발과 해외 홍보에 주력한다면 세계 출판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 박천홍 기자